

“지방소멸 막을 수준 대규모 투자 필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류근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제안
원전 활성화·대중교통 무료 제안도
추 “위기지만 기회...경제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체회의에는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통계청장)는 “수도권에 서면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관련, ‘원전 활용’을 제시하며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옮겨올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식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

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조계원, 민형배·김영록에 ‘여수 발전 3대 정책’ 수용 요구

한반도KTX·석유산업·복합아레나 건립
“동부권 민심, 초대 통합특별시장 결정”



힘써 있다”며 여수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전남도가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가정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을 위해 한반도 기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 전라선 부분 직선화가 아닌 새로운 노선 신설을 통해 서울-여수간 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해당 노선에 재생에너지 공급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융합해 용인 반도체를

리스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도 촉구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통한 응급처치를, 중장기적으로는 SMR(소형모듈원전) 기반 고온가스로 실증 단지 구축을 통한 에너지비용 구조 혁신을 제안했다.

기존 제도를 넘어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소부장·연구개발·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범용 제품에서 첨단소재 산업으

로 판을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세 번째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에 ‘복합 아레나’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바탕으로 공연장 뿐만 아니라, 호텔, MICE 인프라, 호남권의 외국인 카지노 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결합해 매년 1천300만명이 찾는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아시아 대표 ‘메가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비전이다.

조 의원은 “동부권의 소외, 특히 여수와 광양의 산업위기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크기에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준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를 포함한 ‘여수’ 지역위원회 당원 모두는 두 후보가 여수의 미래에 적극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국민 61% “地選 동시 개헌 국민투표 찬성”
중동 관련 정부 경제 대응 55% “긍정”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 모름·무응답은 16%였다.

개헌 국민투표의 지선 동시 실시에 대해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의견이 각각 82%, 65%로 더 많았으나, 보수층에서는 찬반의견이 각각 49%와 4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은 지난 3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중동전쟁 관련 정부의 경제 대응 평가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및 잘함)는 응답이 55%, ‘잘못하고 있다’(매우 못함 및 못함)는 34%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與, 스키론 심야 30→50km 완화 공약
민간 일반에 화장실 개방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 이보호구역(스키론)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9일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키론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